

돌아온 ‘배구 레전드’ 한유미 “페퍼스 가고 역할 하겠다”

AI페퍼스, 국가대표 출신 코치 영입 ‘구단 첫 여성 코치’
“체계 잡혀가고 있는 팀…패배의식 벗어나 최선 다할 것”

“선수와 감독 사이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배구의 레전드” 한유미(43·사진)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첫 여성 코치로 배구계에 돌아왔다.

페퍼스는 전 여자 프로배구 선수이자 국가대표 배구팀 코치를 맡았던 한유미를 코치로 영입하며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반등을 위한 담금질에 나섰다.

1999년 현대건설에 입단해 KGC인삼공사와 GS칼텍스 등을 거쳐 2018년 은퇴한 한유미는 은퇴 직후 KBS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올해까지 활동했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다.

지난 21일 광주일보 취재진과 만난 한 코치는 이날 훈련 3일차를 맞아 장소연 페퍼스 감독, 선수들과 서구 풍암동 금당산 등산을 막 마친 뒤였다.

한 코치는 “감독님께서 코치직을 제안해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도 피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움이 컸다”며 “한번의 코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감독과 한 코치의 인연은 한 코치가 장 감독이 몸 담고 있던 현대건설에 입단하며 시작됐다. 까마득한 고참 선배였던 당시의 장 감독은 가벼운 우유내기, 레크레이션조차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승부욕 가득한 선수였다. 동시에 정도 많고 마음이 어린 사람이었다.

훈련 강도 등을 이유로 남자코치를 선호하던 프로배구팀 문화에서 벗어나 페퍼스는 올해 한 코치를 영입하며 창단 이래 첫 여성코치를 선임했다.

장 감독이 코치직을 제안하며 주문했던 것은 선수와 감독간의 ‘가교’ 역할이었다.

‘여성’이라는 선수들과의 공통분모는 공감대 형성으로 선수와 감독을 이어주기에 충분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능력이 다른만큼 훈련 중 선수들의 신체적 한계를 심분 이해할 수 있고 웨이트 중 자세를 잡아주거나 지적할 때도 수월하다는



점에서다.

또 프로배구 국가대표 등 다양한 활동 경력은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코치는 말했다.

한 코치는 “감독, 코치, 선수 모두 각자의 위치가 다른 만큼 같은 말과 행동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선수의 성향을 이해하고, 감성적인 부분은 풀어서 설명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며 시너지를 만들고 싶다”며 “코치가 먼저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다보면 자연스럽게 감독님이 늘 강조하는 페퍼스만의 문화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코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머니가 무안 출신으로, 광주와 목포 등에서 쌓은 추억이 적지 않다.

한 코치는 “이모와 삼촌이 광주에 사시고, 어머니도 무안에 계신만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다. 가족들이 경기를 보러 오시기도 수월해졌다”며 웃어 보였다.

다가오는 2025-2026 시즌 페퍼스에 대한 희망도 내보냈다.

한 코치는 “해설위원으로 한발짝 떨어져서 바라본 페퍼스는 성장하는 팀이었다. 어린 선수들로 구성돼 ‘지는 경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난 해부터는 체계가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페퍼스가 올해 아시아쿼터로 교체 영입한 미들볼

로커 시마무라 하루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로 함께하게 된 아포짓스파이커 조 웨더링턴이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한 코치는 기대했다. 시마무라는 7월 1일, 웨더링턴은 8월 1일 한국에 입국해 시즌 준비에 나선다.

한 코치는 “2단 연결, 선수간의 사인, 리딩능력 등 기록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 경력과 기본기가 탄탄한 시마무라가 중간에서 이런 부분을 살려 선수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게하는 미들볼로커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웨더링턴의 파워와 잠재력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가오는 시즌, 팬들에게 더 좋은 경기를 선물하기 위해선 페퍼스 선수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코치는 “그동안 페퍼스가 너무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쌓여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난관을 마주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된다”며 “충분히 실력 있는 선수들로 이뤄진 만큼 이제는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즌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은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관 설움’ 턴 손흥민 “나도 토트넘 레전드”

맨유 1-0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맛보며 ‘무관의 설움’을 털어낸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캡틴’ 손흥민(32)이 감격스러운 상황에 즉흥하게 짓은 눈망울로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토트넘은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챔피언에 올랐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히살리송 대신 교체로 투입돼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고, 우승 세리머니 때 팀을 대표해 트로피를 반씩 들어 올리는 환상적인 순간을 만끽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손흥민은 유럽 무대 진출 이후 15시즌 만에 꿈에 그리던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다.

토트넘 역시 2007-2008 리그컵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무려 17년 만에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는 영광을 재현했다.

경기가 끝난 뒤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 나선 손흥민은 허리춤에 태극기를 두르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우승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항상 꿈꿔왔던 순간

이 오늘 현실이 됐다. 꿈이 진짜로 이뤄졌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내내 부진했던 팀 성적 때문에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주장으로서 마음고생도 많이 해야 했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감독님이 많은 압박과 비판을 받았고, 나 역시 주장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었다”고 시즌을 돌아봤다.

우승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정말 간절히 원했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번 경기를 꿈꿨다. 항상 같은 장면, 같은 꿈이었다. 이제 드디어 현실이 됐고 오늘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늘은 모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축하하는 날이다. 모두에게 잊지 않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아마 내일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르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손흥민은 한국 팬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손흥민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국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가족처럼 응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는 항상 세계 최고의 팀들과 겨룰 수 있는 무대라서 정말 기대된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 ‘1위 싸움 분수령’

25일 승점 6점차 1위 인천과 K리그2 13라운드

전남드래곤즈가 외나무 다리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만난다.

전남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2 1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승격’을 목표로 하는 전남 입장에서 인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다.

전남은 지난 18일 충북청주와의 홈경기에서 발디비아의 골을 시작으로 김예성의 추가골, 김도윤의 멀티골을 더해 4-1 대승을 거뒀다. 성남전 2-1 승리에 이어 연승이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다.

이와 함께 전남은 7승 4무 1패(승점 25)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2위 자리를 지켰다.

이번에 만나는 인천은 10승 1무 1패(승점 31)의 성적으로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강적’이다.

인천은 공수의 완벽한 밸런스로 1위 질주를 하고 있다. 인천은 올 시즌 12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면서 수원삼성(25골)에 이어 득점 2위다. 실점은 5점에 그치면서, 골득실 차(19)에서 압도적인 1위다.

또 566번의 패스 중 513회를 성공시키면서 90.6%의 패스 성공률도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강적’이다.

하지만 홈에서 인천을 맞는 전남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전남은 올 시즌 단 1패만 기록하면서 7경기 연속 무패(5승 2무) 중이다. 잔디 교체 공사로 개막과 함께 원정 10연전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얻은 성적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전남도 든든한 방패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전남은 올 시즌 12경기에서 10골을 내주면서 인천에 이어 최소 실점 2위다.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발디비아도 든든하다. 부상으로 3경기에서 모습을 감췄던 발디비아는 앞선 충북청주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장식하면서 승리를 불렀다. 또 발디비아는 46회의 패스를 시도해 40회 동료에게 공을 배달했다. 6개의 키패스도 기록하면서 매서운 발끝으로 승리를 불렀다.

전남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3점 차로 인천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패배를 한다면 인천이 9점 차로 멀어지게 된다. 초반 1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승점 6점’이 걸린 빅 매치다.

전남이 홈에서 승리를 잇고 흥미로운 1위 싸움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